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19. 5.

마리아는 길을 떠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p@hanmail.net



선교생활 나눔

-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사는 이야기 -

저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소속 윤경희 켈마 수녀이며, 지금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 8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21년 독립하였습니다. 총 32개 카운티(County) 중 북아일랜드 6개 카운티는 영국령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184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있었던 ‘감자 대기근’입니다. 이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 800만 명이었던 아일랜드 인구는 1900년대 초 400만 명도 채 되지 않을만큼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기아,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200백만 명이 먹을 것을 찾아 나라를 떠났습니다.

현재는 인구 500만 명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 사람을 좋아하고 매우 친절하며 한국처럼 각 고장의 지역색이 뚜렷합니다. 손과 발을 동시에 이용하는 Irish Football과 손과 막대를 이용하는 Hurling은 아일랜드 고유의 야외 경기인데, 온 국민이 이 두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89세 Kathleen 수녀님도 두 손을 모으고 결승전을 꼭 시청하십니다. 경기가 좀 과격한 편이어서 경기 중에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지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즐겨 춥니다. 우리 수녀님들이 축하 잔치에 모이면 흥겨운 노래와 재미있는 storytelling을 나누며 손바닥이 아플만큼 두들기고 배가 아플 만큼 뒤로 넘어갑니다. 주일 TV 프로그램에 아일랜드 전통 음악과 춤 대항전이 방영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영국BBC 방송의 댄스경연대회 (Dance with Star)도 동시에 방영되어 고전춤과 최신춤을 동시에 맛볼 수 있고 그 둘의 차이도 현저히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수도회 소속 공동체는 더블린에 5개, 그리고 중부 지역 리머릭(Limerick)에 1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수녀님들은 수십 년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셨다가 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평균연령 80세가 훌쩍 넘어가는 현재 이곳 관구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소임에 임하는 수녀님들을 보면 감동이 멈추지 않고요, 그러면서 서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한 수녀님들을 돌보는 것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왔던 동지들을 줄지어 하늘로 떠나 보내는 장례 미사 중에 그동안 하느님의 일을 위해 수고했던 수녀님의 삶을 되새겨보고, 수녀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이별에 슬퍼하는 서로를 위

로하며 안아주는 것 또한 저희의 삶에서 크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015년 말 Ireland, UK, Scotland, Malta 관구에 파견 받아 왔을 때, 관구장님 이신 Marie Therese 수녀님께서 제게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도움을 주시던 수녀님들과 대화를 나눈 뒤 저는 병원사목 공부 (Clinical Pastoral Education) 를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 4월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3개의 unit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9월에 시작하는 마지막 unit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는 더블린 시내에 있는 국립 종합병원인 Mater Misericordiae Hospital 입니다.



병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현지인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사람들과 살다 보니, 내가 한국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얼른 한국으로 돌아가 “나는 한국사람이야. (I am from Korea.)” 라고 대답하지요. 여러의미에서 제 현실과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사랑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제 일상이 눈물 나게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벅찰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계셨다면, 유럽의 끝 섬, 아일랜드에 와서 제가 자리잡고 살 일

국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수많은 아일랜드 선교 신부님, 수녀님들을 기억하며 저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기도로 시작하고 마감합니다.

윤경희 켈마 수녀



JPIC 소식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

2019년 4월27일은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순간이던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한의 두 정상은 판문점을 넘어 만나 설레던 그 날 이후, 곧 올 것 같던 한반도 봄은 여전히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국내외의 갈등을 넘어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DMZ 평화 손잡기' 행사는 강화에서 고성에 이르는 500km의 평화누리길에서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는 평화 릴레이 운동입니다.

각 종교단체는 물론 개인들의 신청을 받는 행사였는데, 이날은 수녀원에서도 모임이 있어서 많은 분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가서 손을 잡자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고, 파주지역으로는 세 명의 수녀님들이 고양지역으로는 8명의 수녀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고양지역은 행주산성 근처의 행주나루터 역사문화공원에 모여서 14시27분 카운트다운을 하며 평화의 손잡기와 만세삼창을 했구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체 30분 정도의 짧은 행사였기에 저희는 따로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자녀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가족단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친구끼리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늦을 거 같아서 택시를 탔다는 대학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재인 대통령의 1주년 기념 메시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대륙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며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찬란한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이인숙 마르타 수녀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으며,
이 세상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나를 봉헌하였습니다”
(창립자 마리 드 라 바시옹)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